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GO DEEPER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k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구주를 생각만 해도(찬85/새85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박선화 장로 2부/박성규 집사 3부/배진용 집사 4부/김수빈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원해(작곡 박지훈)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시편 56:1-13.....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9:2-13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David S. Park 박성권 목사
이날은, 이날은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25)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 귀 기울이기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이날은 이날은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 *축도 Benediction Rev. David S. Park 박성권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주님의 시간에 In God's Timing



박성권 목사 / Rev. David S. Park

오늘 새벽, 썬머타임이 해제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의 썬머타임이 시작되던 3월 13일 주일에도 제가 씨를 뿌리며 추수를 기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썬머타임이 끝나 '가을에는 한 시간을 뒤로' 하는 오늘, 참 절묘한 우연이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말씀 전하는 특권을 받게 된 두 번의 주일을 썬머타임이 시작하고 해제되는 날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정확하게 있을 자리에 두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나서 가을에 열매가 맺히고 추수하는 데까지는 몇 주 시간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훨씬 깁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히는 원리에 비추어 자기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나는 올 한 해를 잘 살아왔는지,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검토해 봅시다. 올해를 시작하며 나는 어떤 씨앗들을 심었나요? 씨앗을 심으려고 하기는 했나요? 어떤 생각들로 한 해를 보냈나요? 나의 새해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영원을 향한 의미 있는 목표들이었나요? 성경을 읽었나요? 기도는 하고 있나요? QT는 열심히 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씨를 심는 것은 희망과 기대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감사 주일이 있는 11월을 맞으며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 보면서 우리 안에서 거두시는 열매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후회되는 일보다는 감사함에 초점을 두어 올 추수 감사 주일에 나눌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한 시간이 추가로 주어진 것처럼, 올해의 남은 날들도 하나님께서 추가로 허락하신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추가로 허락하신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공급하듯이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과 사랑을 계속하여 공급해 주십니다.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 즉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가장 알맞을 때 영적인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씨를 뿌리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Daylight Savings Time ends today. Remarkably, on March 13, earlier this year when Daylight Savings Time began I wrote a column. It was about planting seeds and expecting a harvest. Today, as we end Daylight Savings and "Fall Back" one hour, I cannot help but to wonder how coincidental this is. How is it that these two times that I have been given the privilege to preach on the Lord's Day fall on the two days that mark the beginning and end of Daylight Savings Time? God is making the point that He is in control of time. He has us all exactly where He wants us.

Usually, from springtime planting to harvesting the fruit takes only a few weeks, but given the time we have been given, and thinking about the law of sowing and reaping, these are some questions I think we should consider. These are questions that we must ask ourselves to evaluate how our year has been and how best to end it well. What kind of seeds did I plant earlier this year? Did I even think to plant any? What kind of thoughts did I have throughout the year? What were my goals? Were they worthy goals that have eternal meaning? Did I read the Bible? Did I pray? Did I do my QT? Did I share the Gospel with anyone?

Planting seeds is about having hope and expectation. And as we head into the month of Thanksgiving, let us count our blessings and evaluate what we have harvested. And rather than spend our time in regret, let us think about the things we are grateful for. In this month of November, the month of Thanksgiving let us think about the things we are most grateful for.

Just like we have one extra hour today, let us consider the rest of the year God has given us. Let us consider the rest of our lives that God has given us. Let us trust that God will continue to water us with His Spirit, His Word and His Love until the final harvest; when He comes to gather us home. Let us be faithful to trust that God has granted a harvest. And He will bring further spiritual harvests at just the right time. And meanwhile, let us continue to plant seeds of faith to rely on God Who cares for us and guides us through these times.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박성권 목사

이날은, 이날은

시편 56:1-13

1. 어떤 기념일을 잘 기억하니까? 그 날을 어떻게 즐기십니까?

2. 당신의 최고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반응 할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 이 날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 했나요?

a. 찬양과 경배(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4, 10절)

- 무슨 찬양이나 찬송가를 좋아하니까?

- 종일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보세요.

b. 감사(12절)

- 최고의 감사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c. 눈물의 기도(8절)

- 기도제목을 적으며 기도하시나요?

4. 예수님을 언제 만나서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어떤 반응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적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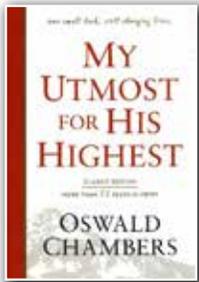
■ 적용찬양: 이날은, 이날은

말씀 AGAIN+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인용되는 책 제목 혹은 신앙 위인들의 인용구, 찬양을 정리하여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Again" 나눕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20년 2월 9일 설교, 나르시시즘 공식을 깨라)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지적 호기심에 이끌려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적 어두움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영적 어둠은 내 안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뉘그러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것이 확실하다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순종할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즘의 공식을 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워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 공식으로 채웁시다.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교회"
 (2019년 2월 17일 설교, 성령 타기)

'하나님의 부흥은 파도타기와 같다.'

파도타기와 같다는 말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에 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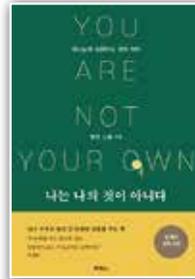


내 안에 망할 놈

이 비유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기 위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이 역사하실 타이밍을 놓치지 맙시다.

앨런 노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2022년 5월 29일 설교, 언제 맹세를 하십니까?)

"현대인들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심히 불쾌해한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불쾌감과 무기력감을 느낀다."



이 책 표지에 '내가 우주의 중심인 세상에 일침을 가하는 책'이라는 추천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개인주의 혹은 개인의 인권을 요즘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또 언제 있었을까요? 공동체의 안녕 보다는 개인의 안녕이 더 중요한 시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 현대인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지금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시간, 안전, 등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맹세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베델교인이 됩시다.

롭 무어 도서 "결단"
 (2020년 3월 8일 설교, 내 안에 망할 놈)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과거의 짐이 내는 성마른 불평의 목소리가 합쳐져 만든 감정이,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30대 젊은 백만장자이자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자수성가한 롭 무어가, 세계의 리더 500명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 책 '결단'의 내용 중, '내 안의 망할 놈을 관리해라'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얻을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감동 있을 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그때 결단을 안 해서, 지금 마음이 굳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들릴 때, 굳은살이 사라지고 다시 새 살이 차오를 때,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2019년 7월 14일 설교 '이끌려 간 빌립의 행복')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빌립이, 길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짧게 언급된 이 사건에,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명령에 이끌려 갔던 빌립 집사처럼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빌립의 이 놀라운 행복의 비결을 발견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소망부(2)

소망부 토요 학교 "이렇게 기뻐해요"

소망부 선생님들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토요일 오전과 오후의 귀한 시간을 내어 교회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침 시간 9시 30분, 늦으시는 선생님은 아무도 안계십니다. 서로 선생님과 학생 1:1 매칭을 한 후에는 하루 프로그램 점검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 하나 노력의 대가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사랑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아이들을 사랑해서 자원으로 오신 귀하신 선생님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베델교회에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 특별히 부엌에서 묵묵히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박정민 전도사(소망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성인의 나이인 19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혼자 있을 수 없고, 어른들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한 활동도 거의 없는 카일은 매주 토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미술도 배우고 운동도 하고, 사물놀이를 통해 음악까지 접할 수 있도록 유익하게 짜여진 소망부 토요 학교에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식성이 까다롭고 그룹으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동안 해왔던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점심을 늘 거르고 집으로 돌아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델 토요 학교에서 제공되는 점심을 매번 잘 먹을 뿐 아니라 더 달라는 표현도 하기 시작하는 등 식사습관과 소셜스킬 또한 놀라게 성장하고 변화하

고 있습니다. 그동안 염원해왔던 소망부 토요 학교가 새로이 열리기까지 박정민 전도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사랑, 그리고 매주 정성으로 점심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의 손길 등 수많은 숨은 봉사자들의 노고가 없이는 불가능 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의 우리 아이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에 대한 감사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오늘 토요학교에서 픽업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카일이 말합니다. '토요학교 재밌어!' 'Church 밥 맛있어!'

제니퍼 박 집사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코엔은 소망부 토요 학교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항상 반갑게 코엔을 맞이해 주시는 소망부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TA들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코엔을 맡길 수 있고, 무엇보다 코엔이 소망부 토요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국악, 스포츠, 지점토 클래스 등 베델 토요 학교만의 고유하고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어서, 장애가 있는 코엔에게 특히나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엔이 제일 기다리는 맛있고 다양한 점심식사까지 제공해 주셔서 저희는 아주 감사한 시간들로 토요일을 꽉 채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에 알찬 프로그램들로

소망부를 섬겨주시는 베델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모든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훈 집사

토요일 오후 한 시 소망부 토요 학교가 끝나는 시간, 베델 Gym으로 저의 아들 카일을 픽업하러 갑니다. 이번 주는 축구를 배우는 날입니다. 운동신경 발달이 늦고 집중력이 부족해 간단한 축구공 차기도 따라 하는 것이 버거운 카일을 위해 선생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일대일로 손을 잡아주시고 축구공도 잡아주시며 한 동작이라도 더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주 사물놀이 시간에는 장구와 북치기를 배우며 신나게 북을 두드리면서 즐거워하는 카일의 모습을 보시며 오히려 더욱 즐거워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르며, 오늘도 베델교회 안에 거하시는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소망부를 섬기시는 전도사님, 주말의 시작을 봉사로 섬겨주시는 천사 선생님들, 무엇보다 소망부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담임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토요 학교의 소망부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누구보다 더 신실한 집중도와 순수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들의 부모가 될 수 있어서, 그리고 그 부모들이 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델교회 소망부 토요 학교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봅니다.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사랑의 눈빛에서, 그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책임감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며 그것을 또한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음에 눈물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준 집사



베델 패밀리 in 코리아 후기

우린 천국 백성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타를 치며 박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제3회 베델 패밀리 in 코리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델동산을 기억나게 하는 둥근 테이블 위에 아름다운 꽃장식과 봉사자들, 베델의 귀한 두 분의 특별찬양, 그리고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로 시작되는 시편 23편으로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모인 백여명의 베델 출신 성도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동이 넘치며 분당 지구촌 교회가 순간 얼바인 베델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만난 베델은 저뿐만 아니라 이번 모인 모두에게 참으로 잊지 못하는 귀한 디귤한 곳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베델의 뜰을 밟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목 놓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받아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베델을 그리워하는 365일 중 단 하루, 몇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잘 준비해주신 봉사자분들의 정성과 기막히게 맛있는 식사, 연이어서 모임을 진행하시는 집사님이 준비하신 순서 하나하나에 모두가



웃고 손뼉을 치면서 진짜 코로나로 찌들었던 영과 육이 재충전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성도가 시간을 달리하며 교회를 섬긴지라 서로가 잘 몰랐어도 베델에서 같이 은혜받았던 사실에 만나자마자 바로 한 가족이 되었던 것처럼 더 깊이 옆드려 기도하고 더 높이 날게 치는 믿음 지킨 후, 천국에 이르렀을 때 처음 만났어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바로 같은 주의 백성이 되어 여호와와 집에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베델 패밀리 in 코리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고의 준비를 해 주신 베델교회 리더쉽들과 모든 성도분께 참석자 모두의 마음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김선주 사모

GMMA 의료선교대회 후기

선택과 결단은 한 줄기 소망



아직도 Covid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660명의 등록 인원과 진행 인원등 700여 명이 모인 대회였습니다. 미주 모든 지역과 외국에서 참석한 인원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참석한 인원보다 많은 세계적인 대회였습니다. 대회를 마친 후, 여론조사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9.6을 받았고, 특히 대학생과 젊은 청년들의 참여가 현저히 늘어나 교회와 GMMA(Global Medical Mission Alliance)가 기도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



다. 세계선교에 놀라운 사역을 펼쳐온 40명의 강사가 참가하여 전체모임과 분담모임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세계인의 대회였습니다. 35개의 선교단체가 체육관에서 각각의 선교사역을 소개했는데 GMMA가 오랫동안 펼쳐온 캠페인 AWAY4G(A week a year for God, 일 년에 일주일을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헌신하시겠습니까?)를 통해 상당한 참가자들이 각 선교단체에 헌신했습니다.

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때(God's time)의 주제는 선교(Mission)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제자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토요일 저녁 마지막 전체 모임 때는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삶을 주

님께 드리는 서원에 참여했습니다.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천국 잔치였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100여 명의 베델용사들이 협력하여 너무도 완벽하게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교회와 GMMA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용사들,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2000년동안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부흥운동이 미전도 종족에게 일어나는 이때, 주님의 자상명령을 듣고 선교에 헌신하는 영적 축복의 시간을 열어주신 교회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19-20)

정수영 (GMMA 회장)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 총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군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

다사다난했던 2022년 11월 감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가정마다 축하하고 기쁜 사연을 함께 나누고자 하지만 여러 고난속에 감사의 제목이 없는 가정도 계시지만, 함께하는 우리는 베델의 공동체입니다. 그 많은 사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감사의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에서는 이런 의미를 담아 감사의 사연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수 감사 주일 늦은 오후 코트 야드에서 펼쳐지는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는 셀 단위나 각 가정 혹은 개인의 감사 사연이 담긴 엽서를 추천하여 손용주 목사님과 베델 찬양팀에서 아름답게 편곡한 음악과 함께 선택된 사연을 무대에서 나누며 늦은 밤 감동이 곁들여진 추수 감사절 터키 만찬이 준비됩니다. 이자리를 빛내기 위하여 베델의 숨은 능력자들의 데코레이션과 함께 은혜로운 음악 그리고 정성이 담긴 음식이 한껏 준비되어 아름답고 멋진 감사의 밤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 주일 모임을 갖지 못하는 셀이나, 아직 셀 원으로 속하지 않은 가정도 많은 사연 신청과 함께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나눔과 음악, 그리고 풍성한 터키 만찬이 함께 펼쳐지는 추수 감사절 밤의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 우리 모두에게 2022년 가장 기억에 남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 일시: 11월 20일(추수감사 주일) 오후 4시 30분
- ▶ 장소: 베델교회 코트야드
- ▶ 응모기간: 10월 30일(주일)-11월 13일(주일)까지
- ▶ 응모방법: 교회 앞 부스에 준비된 엽서에 기록하여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이메일(hongsikkim@bkc.org)로도 응모 가능합니다.

- ▶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예배 봉사자

| | | | | |
|----------------|---------------|--------|--------|--------|
| 주일예배 대표기도(11월) | 11/13: ①부-박영덕 | ②부-박원규 | ③부-서우석 | ④부-김유리 |
| | 11/20: ①부-박재문 | ②부-박호성 | ③부-송용훈 | ④부-나승호 |
| | 11/27: ①부-박지학 | ②부-백영만 | ③부-연규호 | ④부-박양아 |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1,12월) | 11/12: 이봉재 11/19: 이명환 11/26: 이삼열 12/3: 이동오

강단꽃(11월) | 11/6: 김영신, 김진환 11/13: 이주은 11/20: 성홍숙 11/27: 주정숙, 박정화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오흥길(외과), 간호사-윤성자 다음주 | 의사-마준(한의학), 간호사-박규희

선교후원

-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이(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경),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삼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썸머 타임(Daylight Savings Time) 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2시가 1시로)

◆ **성인 세례/입교식 안내** 성인세례 및 입교식이 다음 주인 11월 13일 주일 2부 예배에 있으며, 오늘은 세례/입교 문답을 진행합니다.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성인 대상자 문답 일시/장소: 오늘(6일) 오후 12시 30분, 비전센터 2층 목회자실 CIM, BYM, 예살 청년부, 소망부 문답 일시/장소: 각 부서에서 공지한 시간과 장소
문의: 최규덕 장로 (949)838-4445, 조태현 목사 (949)431-8440

◆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 성도님들의 감사의 사연과 음악이 어울어진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022년 한해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셀이나, 팀 또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는 상품과 터키 만찬이 준비됩니다. 행사 당일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일시: 11월 20일(감사주일) 오후 4시 30분, 베델교회 코트야드
응모기간: 10월 30일(주일)-11월 13일(주일)
응모방법: 교회 앞 부스에 준비된 엽서에 기록하여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이메일 hongsikim@bkc.org 로도 응모 가능합니다.)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수요 예배** 박경철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현장 예배에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2022 하반기 베델 셀목자 "셀동산"** 1년간 셀모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해 주신 여성 셀목자님들을 위한 여성 셀동산이 열립니다. 신청링크를 각 목장 별로 발송해 드렸으니 베델의 여성 셀목자님들은 모두 참여하시어 위로와 교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1월 19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 EM 채플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 **11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11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초등부(2,3부 교사&TA)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Samaritan's Purse Shoe Box** 캠페인 매년 가난 가운데 고통하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hoe Box는 교회학교 check in 부스에서 픽업하시면 됩니다. 선물로 준비된 box는 주중에 교회 사무실이나 주일에 같은 장소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모집기간: 10월 30일(주일)-11월 20일(주일)
문의: 최병웅 집사 (714)586-6703

◆ **CIM 추수감사 뱃캣**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6:30에 유년부실(구식당)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한어중고등부의 모든 섬김이가 함께 모여 추수감사 뱃캣을 가지게 됩니다.

문의: 김도석 팀장 (714)401-0532

◆ **2023년 베델 한국학교 봄학기 등록 안내** 베델 한국학교가 대면과 비대면 수업으로 2023년 봄학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봄학기에도 많은 관심과 등록을 바랍니다. 토요일 오전반은 대면 수업이며 오후반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등록 방법: 베델 한국학교 홈페이지 school.bkc.org, 10월 31일(월)부터 등록 가능
기간: 1월 21일-5월 13일(16주, 4월 8일 부활절 휴강)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 30분(대면)/오후 1시 30분-3시 30분(비대면)
수업 내용: 큐티, 한국어, 한국 문화

대상: 5세 이상부터 중고등 학생(2022년 9월 1일 기준, 킨더 이상)

등록 기간: 10월 31일-11월 21일
등록비: 대면-\$310 (문화수업 및 간식 포함), \$330 (11월 21일 이후)
비대면-\$210 (문화수업 포함), \$230 (11월 21일 이후)

*효율적인 학급 편성을 위해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사들도 모집 하고 있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 故 김소세 성도님(이옥란 성도의 모친, 이광철 성도의 장모)께서 10월 22일(토)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 故 장만호 집사님(장유성 집사의 부친, 장윤희 집사의 시부)께서 10월 23일(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김윤철 성도님(김정우 집사의 부친, 김금숙 권사의 시부)께서 10월 29일(토)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박영균 장로님(박경수 집사의 부친, 조민지 집사의 시부)께서 10월 29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박영희 권사님(박재홍 집사의 모친, 박미미 집사의 시모)께서 10월 29일(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박정애 권사님(김호경 집사의 모친, 김경란 권사의 시모)께서 11월 2일(수)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 故 박소남 성도님(박정찬 집사의 부친, 정보미 집사의 시부)께서 11월 3일(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류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Psalm 56:1-13

1. What day is most memorable to you? Why? How do you celebrate that day?

Apply to Life



2. What is your greatest fear? What happens when we respond in fear?

3. How can we respond like David did?

a. Praise & Worship (Of God's Promise) (v.4, 10)

- What praise songs do you like to sing?

- What are some ways we can be worshipping all day?

b. Thanksgiving (v.12)

- What are you most thankful for?

c. Prayer in Tears (v. 8)

- What prayers have you written down?

4. When did you meet Jesus Christ and become a Christian who has eternal life? How can we show we have assurance of salvation?

■ **Song in Response:** This Is The Day